

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은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해 있고 규모가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로 이용한 시설은 커먼스, 강의실, 기숙사, 카페테리아입니다. 커먼스에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와 조리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놀거리(포켓볼, 탁구, 게임기)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식사를 하는 곳으로, 자판기도 있고 식수대도 있습니다. 평지이고 조용합니다. 초반에 길을 잃고 헤메인 적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친절히 알려줄 만큼 학교 내 사람들이 정겹고 친절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웹디자인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명씩 팀을 짜서 각각 필드트립을 주제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주요과제였습니다. 초반에는 CODEPEN을 다루는 법을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솔직히 너무 빠르고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일대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점점 자유시간이 늘어나서 따로 과제를 하기 위해 시간을 쓸 필요 없이 수업시간에 팀원과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학생들이 웹사이트 만드는 것을 봐주셨고 친절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시는 등 열정이 넘치셨습니다. 수업준비는 딱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필드트립으로는 워터파크, 위스키타운, 샌프란시스코, 샤스타 댐, 터틀베이 등 다양한 곳들을 많이 갔습니다. 생각보다 물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수영복과 수건을 구비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정말 강하니 꼭 선크림을 바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장소들이 넘쳐나니까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 챙기세요! 추가비용은 각자 쓰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필드트립 중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쓸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현지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꼭 수분크림, 바디로션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으니 손풍기 챙기세요. 하지만 반대로 강의실이나 실내는 에어컨을 틀어서 춥습니다. 가디건과 남방 등을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에 대해서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항상 세큐리티가 순찰을 돌고 있었고 친절하셨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공동화장실, 공동샤워실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 도착했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청결하게 관리된 편이라 만족했습니다. 숙소에는 배게, 수건, 이불 등이 비치되어있었지만 먼지가 조금 쌓여있었습니다. 한번 털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제공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다녀온 친구가 학교식당 음식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해서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먹을만 했습니다. 과일, 샐러드는 항상 제공되었지만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음식이 전반적으로 짜고 느끼해서 이 점을 감안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내마트를 가면 한국음식과 양념, 라면을 팝니다. 가끔씩 먹어주면 활력이 되었습니다. 외부식당은 사람마다 평가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학교식당 보다 외부식당이 더 먹을만 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저는 우버나 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시내교통을 잘 모르지만, 현지 친구들이 버스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며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필드트립을 갈 때는 학교버스를 이용했고, 그 외에 마트를 가거나, 주말에 놀러갈 때는 모두 shasta college 친구들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사전에 납부
쇼핑, 식비	800,000	환전함
비행기표		

합계	835,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생각보다 기후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로션, 수분크림 등을 챙겨가시고, 햇빛이 강하니까 선글라스도 챙겨가세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선물할 것들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정이 많이 들어요. 꼭 보답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챙겨가세요.

병원비가 비싸니까 상비약들을 챙겨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솔직히 처음에 갔을 때 대학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을 조금 했었습니다. 하지만 필드트립을 정말 많이 다녔고, 친구들이 차를 태워다 주면서 여러 곳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shasta college 학생들과 헤어지면서 너무 아쉬웠고 정도 많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현지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정집에도 방문을 해보고, 여러 가게를 가보면서 직접적으로 미국문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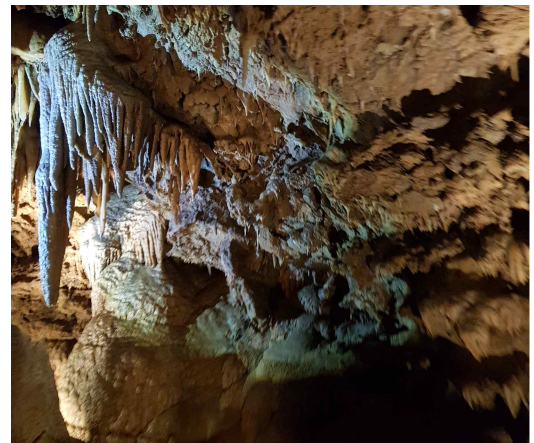
Turtle Bay에 갔을 때 봤던 Sundial Bridge!



whiskey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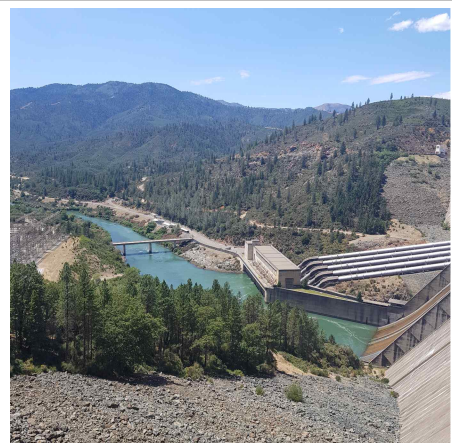
7월 4일 불꽃놀이 끝나고 친구들이 만들어줬던 smore. 맛있었다.



shasta carvern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탔던 트램.



shasta dam